

부처님오신날 특집

/ 타종교 친구에게 쓰는 편지 /

김효정(부산 상리초등 6년)



하나님을 믿는 친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에게 불교가 좋다고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밖에 보이지 않았었다. 엄마와 함께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세 번 절을 하고 스님들께 두손 모아 인사하는게 무척이나 어색했다.

그러다가 어린이법회에 참석하여 스님과 지도교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야 절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한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신의 주인공 믿고싶지 않니...

박혜민(대구 수성초등 6년)



친구야 안녕. 나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에 다니는 박혜민이야. 혹시 넌 선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나? 나는 참선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고 생각해. 넌 누굴 믿고싶은 생각은 없니? 믿고 싶다면 누굴 믿고 싶니? 혹시 우리 선원에 다닐 명해 줄래. 아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말은 나 자신의 주인공을 믿는다는 말과 같아...

이상민(전주 남초등 3년)



안녕. 날씨가 무척 포근해졌어. 요즘 우리절은 무척 바쁘단다. 24일이 부처님오신날이기 때문에 연등준비로 부산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단다. 나는 그중에서 특히 항상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을 좋아해.

왜냐하면 어른들을 보면 항상 싸우기만 하잖아.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서로 좋으니까. 수영아,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나 부처님보다 훌륭하다고 큰소리친 적 있었지. 만일 하나님과 부처님이 만났을 때 싸울까? 그렇지 않을거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처럼, 나는 부처님처럼 열심히 살도록 하자.



새싹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부처님은 가르침을 알았으면 사람들을 위해 알려 주어야 한다고 했다. 포교는 과연 어른들만의 몫인가, 새싹들까지도 주위 친구에게 포교해 선근공덕을 쌓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박정미(서울 중평초등 5년)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느니보다 친구를 이끌고 절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불교를 믿는 친구들은 잘 알 것이다.

로는 돌연변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친구를 이끌어 절에 함께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난 더욱 사찰에 열심히 다녔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어린이회에서 배운 노래를 고무줄

절에서 배운 노래·놀이 알려주니 친구들 좋아해

다니다가 2년전부터는 어린이법회에 가입해 다니고 있다. 교회만큼은 재미있지 않지만 난 스님이 계시는 어린이법회가 참 좋다.

넘길때 부르는 노래로 응응을 하고, 스님에게서 배운 놀이를 가르쳐 주며 놀았다. 물론 나도 즐거웠지만 친구들 역시 즐겁고 재미있어 했다.

그저 절이라고 하면 무섭게 생긴 사람들로 가득차고 심심하고 지겨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내가 절에 다니다고 하면 친구들은 신기해하고 때

스님과 엄마는 이 일을 놓고 내가 친구를 포교한 것이라고 말 슬하하며 기뻐하셨다.

이렇게 전법 했어요

김병수(부산 해화초등 6년)



50여명의 반 친구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절에 나가는 친구들은 25명 정도로 다른 학급에 비해 많은 편이다.

가 다니는 관음사에 데리고 간 적이 있다. "절에 가면 '마귀' 같은게 많은데 너 무섭지 않나?"라며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던 수진이가 이제는 나보다 더 어린이회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일단 절에 데리고 와 스님 법회분위기 등 보여줘

다른 친구들처럼 종교를 뒤흔어 밝히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은 없다. 그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빠짐없이 나온다. 난 불자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친구들을 일단 절에 데리고 와 어린이회와 스님, 절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어머니가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길 보면 내 '작전'이 성공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난 때때로 용기를 얻는다. 절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일단 절에 가 보자'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친구 수진이를 내

24일은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이 싯달타 태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다. 부처님은 아기태자로 나시기 이전에 흙, 돌, 나무, 새...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동물로 태어났던 적이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에 듣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이 전생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을 여행하고 계실때 산불이 깨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옛날 마가다국 어떤 숲속에서 귀여운 새끼 메추라기가 태어났다.

가운데 엄마이빠새는 안절부절하며 불안을 가리얏하지 못하였다. 곧이 어 인근의 숲에서 빠작빠작 나무들이 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저녁 노을에 물든 것 마냥이 깨지면서 마치 동심 때오른 보름달처럼 동동동동 살핀 귀여운 얼굴이 나왔다.

아기 메추라기

에 남겨두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라부라 날아갔다. 새끼 메추라기는 반겨오는 연기 속에서 산불이라는 난생처음 보는 끔찍한 비극이 파도처럼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삽화·이희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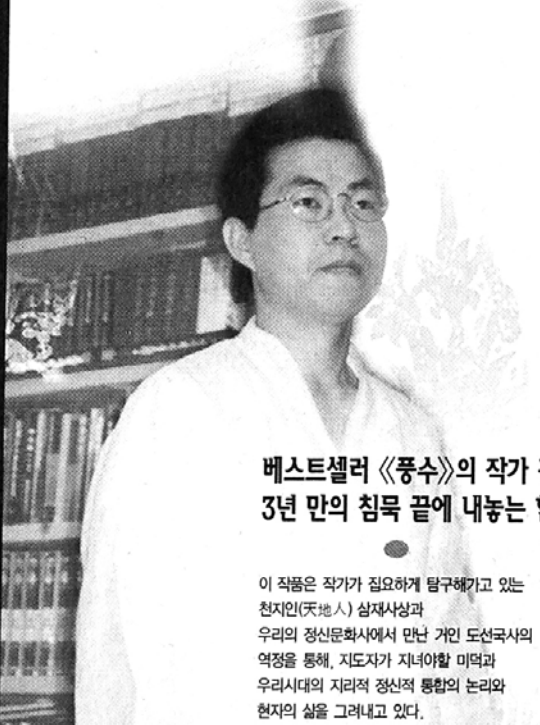
불이나자 숲속 동물들을 걱정하는 모습에 자비심...

범게 부닥치기만 해도 불이 와락 옮겨 붙었다. 그리하여 맹렬한 속도로 나무에서 나무로, 가지에서 가지로, 앞에서 앞으로 옮겨 붙더니 마침내 불은 온 산 전체로 번져나갔다.

아, 고통스러워. 연기가 너무매워 숨쉬수가 없어. 날 좀 도와줘! 새끼는 목숨을 다해 울었다. 하지만 이미 숲속에 살고 있던 새란 새는 모조리 날아가 버리고, 아무소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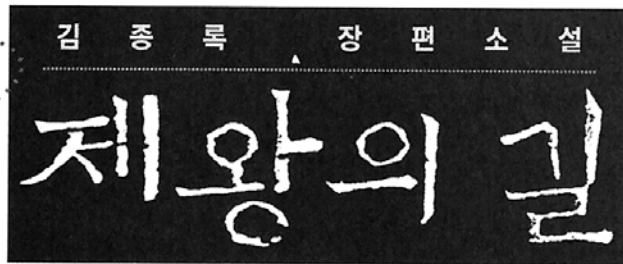
는 온 마음을 기울여 노래하였다. "날개가 있다지만 날지 못해요. 다리가 있다지만 걸지도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도 곁에 없답니다. 오오, 불이여! 사라지소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토록 기세좋게 타오르던 불이 새끼 메추라기가 살고 있는 숲의 바로 앞에서 일시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꺼져버렸다.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베스트셀러 《풍수》의 작가 김중록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힘찬 소설!

이 작품은 작가가 집요하게 탐구해오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자사상과 우리의 정신문화사에서 만난 개인 도선국사의 역정을 통해, 지도자가 지녀야 할 미덕과 우리시대의 지리적 정신적 통합의 논리와 현자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보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쇠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한강토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낸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신국판/328면/6,800원

라이프출판사

삼중스님 에세이

결망에서 배운 인생

어머니의 애잔한 눈길은 아직 가슴에 있고, 절망이나 절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신국판/320면/6,000원

